

일상 속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법

Questioning the Everyday Assum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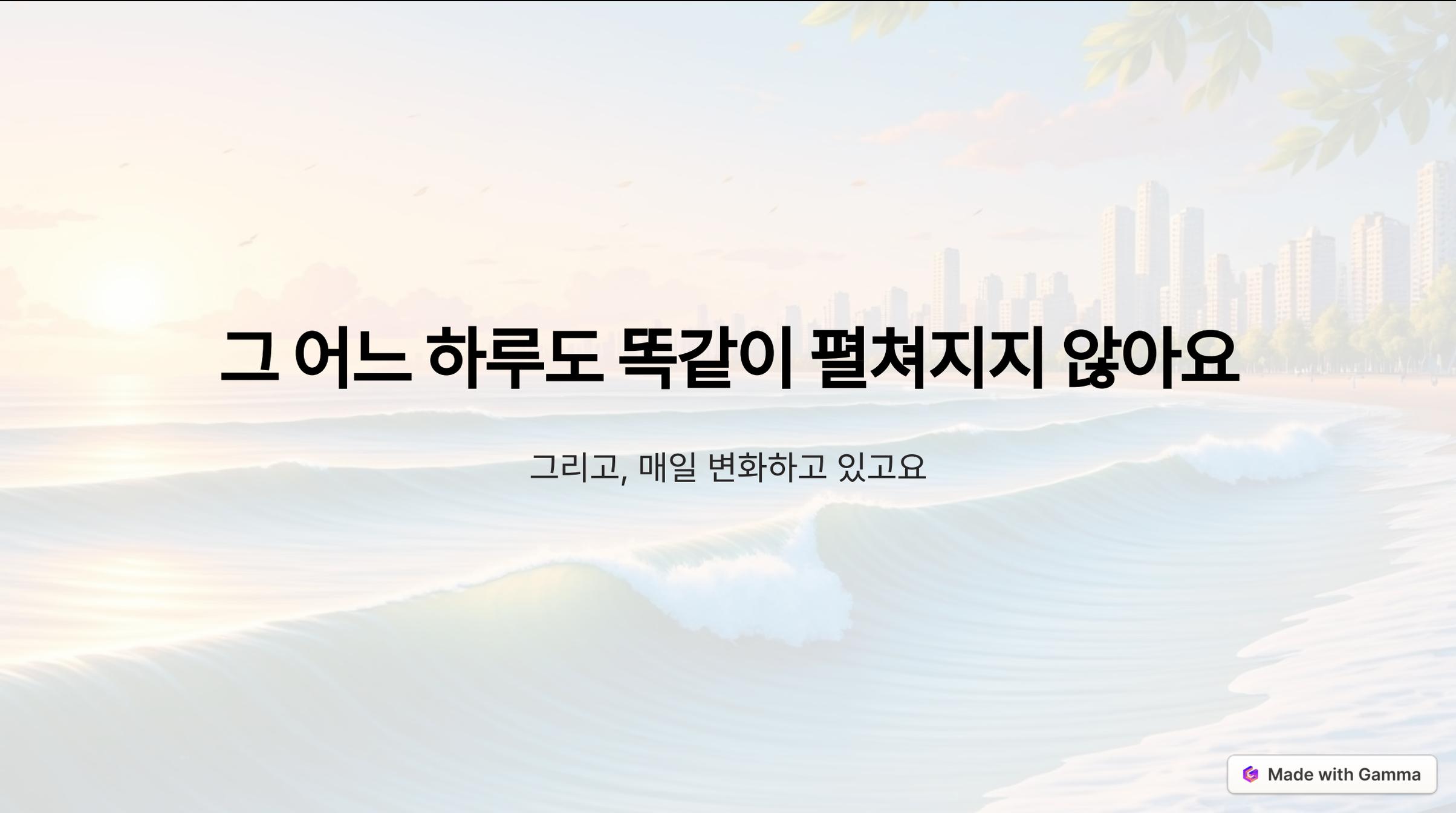
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

모든 일러스트는 Gamma의 Imagen3 모델로 생성됐고,
업체 사진들은 해당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참조했습니다.





1932-2019



그 어느 하루도 똑같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변화하고 있고요

질문을 통해 꿈틀대는 변화를 포착하기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이들을
우리는 **혁신가**라고 부릅니다 🚀

일상의 문제를 발굴해 뾰족하게 해결한 스타트업들



질문 근육 🦵 키우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훈련 1]

보고 있는 현상을, 다시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관찰하고 묘사해 보세요



[훈련 2]

묘사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왜?”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훈련 3]

다른 유사한, 혹은 꼭 다른 현상들에 대입해
보며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세요





정확도에 민감해질 때

입력 : 2024.07.17 20:41 | 수정 : 2024.07.17 20:47 | 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

출근하던 아침, 스마트워치의 진동이 울렸다. “깨끗이 씻었어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팬데믹 시기에 추가된 기능인데, 20여초 손을 씻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곤 한다. 그런데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서 이런 메시지라니. 분명 매미 울음과 손의 흔들림을 ‘씻는 행위’로 판단한 기계의 실수임이 틀림없었다.

이런 기계적 혼동쯤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다. 도리어 ‘여름철 곤충 소리가 물소리로도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기계의 오류를 활용해 소박하게 우리의 이득을 챙겨온 적도 있다. 휴대전화를 마구 흔들어 ‘1만보’를 걸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고, 마우스를 툭툭 쳐서 잠들기 직전의 원격 근무 툴을 깨우기도 했으며, 이상한 광고를 눌러 보더라도 황급히 다른 콘텐츠들을 꼭꼭 눌러 ‘검색 세탁’을 하기도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막 세상의 빛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을 탐색했던 것도 정확도의 틈을 노려 기계를 놀려먹으려는 시도였다. 사용자들은 거짓말을 한 번 시작한 친구를 끝까지 놀리기라도 하듯, 집요하게 이야기를 꾸며내게 했다. 조선시대에 맥북 같은 컴퓨터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것이 마치 있었던 일인 양 말을 풀어가게 유도했다.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진술 꾸며내기) 사례인데, 사실관계의 정확도가 중요한 챗봇 기반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겐 꼭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사용자들의 놀림과 비판을 피드백으로 빨아들인 AI 서비스들은, 그 덕에 더 빠르게 정확도를 올려가고 있다. 이때 시도는 단지 서비스 업체들에만 도움된 게 아니었다. 할루시네이션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관계의 거짓뿐 아니라 세상 어느 한 단면이 지닌 혐오와 고정관념, 도덕적 오류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인간 사회 안에서 비가시적으로 머물러 있던 어두운 메시지를 AI는 기계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계에 최대한 높은 일치율로 학습시키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질문을 잔뜩 던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